

제 130호 교육 목적: 특성화

세상 흐름에 따라 교육적 인간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문화·경제·정치 체제가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내용도 질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경 사회, 산업 사회 같은 구시대에서는 완벽한 인간형이 하나 있고, 대부분의 피교육자들을 이런 기준에 맞추는 것을 교육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상품처럼 결과물이 모두 똑같고, 기준에서 미달되는 것은 모두 불량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교과서를 배우고, 정답이 하나 뿐인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며 만점에서 멀수록, 모범생 기준에서 멀수록 불량 학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은 절대적, 획일적, 수직적, 일방적, 그리고 경직된 사회 이데올로기의 축소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시대, 즉 새시대는 다릅니다. 우선 한 가지 "정답"이나 "모범 인간형"이라는 개념이 없고 누구나 나름대로 개성과 소질을 개발해나가야 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게 공부고, 문제 해결을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이 해답입니다. 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절대와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상대와 적응력을 키워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순발력과 유연성이 곧 생존력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인간)은 끝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 기성세대가 설정한 어떤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각자 평생 배우고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전의 교육적 인간관이 '완성된 인간'에 있었다면, 새시대에는 '발전되어가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인간관이 바뀌면 당연히 교육 과정에 대한 시각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교육적 인간관 자체가 바뀐다면 그러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시대의 교육 과정은 한 마디로 "단편 교육"이었습니다. 교과서 외에 소설이나 잡지나 영화를 보는 것은 모두 "쓸 데 없는 짓"으로 간주되었고, 한 학급, 학년, 학교, 입시생 등 한정된 경쟁자들에게 똑같은 수험 문제를 주어 점수 순서로 서열을 매길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개성이나 희망 사항 따위는 쉽게 무시되었고 따라서 모두가 타율에 의해 이끌려 가는 상황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합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시대에는 정보의 속성상 "단편"을 거부합니다. 이미 학생들은 인터넷과 무선 전화기를 소유하고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누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는 물이나 공기처럼 국경선과 바다와 상공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인터넷은 밤이나 낮이나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도 순식간에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변화는 교육 과정 또한 "열림"을 전제로 하게 합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숙제 할 때나 심지어 시험을 치를 때조차도 책, 노트, 참고서, 백과사전, 컴퓨터를 "열어 놓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과제에 한 가지 답보다 한 과제에 여러 답이 나오도록 다양성을 권장하고, 남들과 똑같은 답을 적어내기보다는 아무도 생각 해보지 못한 기발한 생각을 "특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율성"이 성숙되어야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규제, 일방적 훈시, 감독, 체벌보다는 목적을 명시한 다음에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필요하다면 협조하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교육 방식의 발상과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조벽, 2001